

티베트 부처님오신날 6월11일

# 자기 변화 발원하는 날

### 한국 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 초파일 준비 분주



부산 광성사의 티베트 스님들이 네팔에서 모셔온 불상 복장물을 준비하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 티베트센터(www.tibetkorea.org)인 부산 광성사(주지 초법)를 찾았다. 광성사는 5월 5일 한국의 부처님오신날 준비와 함께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인 6월 11일 행사도 함께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광성사 신도들의 부처님오신날 준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도들이 자

기가 밝힐 등을 직접 정성을 기울여 만든다는 것이다. 초법 스님이 '만드는 과정과 마음가짐 자체가 공양'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6월 11일 열릴 부처님 점안 의식 준비에도 한창이다.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보름을 기념하며 네팔에서 조성한 28분의 불상을 모셔와 티베트센터 3층 법당에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불상 안에 모실 복장물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법 스님의 스승인 덴펠 스님을 비롯, 다섯 분의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점안의식은 3시간여 동안 티베트 전통 의식으로 봉행된다.

이 밖에도 3층 법당 내부의 한쪽 벽면에 네팔이티마의 여승공전인 노르불링카의 티베트예술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광성사 주지 초법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한 것이 없다". 음력으로 4월 보름에 부처님 탄신일, 성도일, 열반일을 한꺼번에 기념하지만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은 한국처럼 연등을 달거나 행사를 열지는 않는다.

그러나 4월 보름 당일에는 여러 절을 찾아 버티로 만든 초를 공양물로 올린다고 있다. 또한 그날 공덕을 쌓으면 평소보다 십만 배는 크다는 믿음 때문에 선행을

### 4월부터 선한 생각하는 기간 가져

### 네팔서 조성한 28분 불상 봉안 예정

### 초법 스님이 주문한 5미터 탱화도

5m 크기의 자수 탱화를 봉안하기 위한 벽면 공사도 한창이다. 이 탱화는 초법 스님의 특별 주문으로 20명이 1년여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21분의 보살을 수놓았다.

초법 스님은 이 탱화를 조성한 후 부별 사진을 곁들여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있거나,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각각의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새겨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2003년 개원된 광성사는 이렇게 분주하지만 티베트 현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계를 받거나 수련을 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기 점검의 날인 셈이다.

이처럼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은 저마다 자기 성찰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로 충만하다. 티베트의 이러한 풍습처럼 한국 티베트센터인 광성사에서 자기 변화를 위해 십만 배 기도를 입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티베트식 오혜 투지를 하고 있는 신도들을 법당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051)243-246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특강·연구발표에 유물관람도

### 통도사 성보박물관 미술사학회 학술대회 가져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장범하)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불교미술사학회 회장 범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를 시작하고 7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열정 때문"이라며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라면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 열린 특별강연에서 홍익대 김리나 교수는 "한국미술사 회고"라는 주제로 초기 불상 연구과정에서 있었던 오류와 의미 있었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며 "한국 미술사에서 불교 미술은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인 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홍익대, 동아대 등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회원들은 이어 열린 보스턴 미술관 오동 중앙부장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본 불교미술 감상'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들은 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8일에는 송광사성보박물관 김종민씨의 '백지금자묘법연화경' 4권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화여대 박순연 씨의 "조선 후기 팔상도의 특징" 등 5명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회합했다.

이은아 기자

### 어린이법회 지도자 정진대회

사단법인 동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는 4월 3일 여선원 법당에서 부산 경남 지역 사찰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위한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대불어가 부산 경남 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교사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한 정진법회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각 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 예정이다.

처음 가진 이날 법회에는 30여 명의 부산 경남지역의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이 동참해 정어 스님의 선제조 특강을 들었다.

정어 스님은 이날 특강에서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쉬운법에서도 선제조의 이론과 실기를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 '우주를 담은 작은 시선'

### 김윤희씨 17일부터 사진展



그동안 낮은 소리로 불법을 전하는 <맑은소리 맑은나라>의 발행인 김윤희 대표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인사진전 '우주를 담은 작은 시선'을 연다.

7년 전 겁 없이 시작했던 일에 대해 뒤늦은 신고식을 지르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다. 이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 53점은 그동안 <맑은소리 맑은나라> 표지에 사용됐던 사진들로 일간지 취재부 기자, 잡지사 편집장, 부산불교신문사 기자 등을 거쳐 왔던 김 대표가 틈틈이 찍은 작품들이다.

전시 작품들은 사람의 구성구석을 조금은 색다른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사람의 돌담을 배경으로 자리한 장독대(사진), 색 바랜 당우의 외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 등 사찰을 찾는 불자들조차도 쉬이 눈길이 가 닿기 어려운 곳의 풍경을 알뜰하게 담아 전했다. (051)441-0263

천미희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 27년 불교음악의 열정 선보여

### 강영화 작곡 발표회, 26일 금정문화회관에서

4월 26일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강영화 작곡발표회'가 열린다. 27년 동안 불교음악을 해온 강영화씨(사진)가 불교음악으로는 처음 가지게 되는 개인발표회다.

이번 발표회는 '다양한 인성(人聲)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독창, 테너 독창, 남성중창, 여성합창, 혼성합창 그리고 마임(無言劇)과의 만남 등 다양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작곡과 및 동(同) 대학원을 졸업한 강영화씨는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

악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한민국의악제 및 국제연극제 극음악 작곡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회는 참회계, 열반에 피어난 연꽃, 불공을 마치며 등은 여성합창단이 선보이며 직접 가사, 작곡한 기원, 발원문 등은 청공 남성중창단이 무대에 올린다. 017-557-3038

천미희 기자



### 이시우 박사 화엄세계 강연

'천문학자가 풀이한 금강경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 초청 강연이 부산에서 열린다.

4월 21일 오후 3시 부경대학교 본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시우 박사 초청 '화엄세계와 우주심'을 주제로 한 불교교사상 강연회는 부경대 교수불자회, 불교동문회, 불교학생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열어온 불교사상 대강연회는 스님 법문을 위주로 진행하던 예전과는 달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이며 한국과학기술원원장 정희원으로 <천문학과와 불교의 대화> 등의 저서를 쓴 이시우 박사를 초청해 우주심과 불교의 관계성을 찾아 나선다. (051)620-6391

천미희 기자

## 쌍계사 대웅전 보수 상량식 봉행

### 보물 500호, 연말경 낙성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원정)는 4월 13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 사중 스님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물 제 500호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보수공사 중 대웅전 어간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과 새로 작성된 상량문을 함께 봉안했다.

조선 인조 14년(1636년) 벽암당 각성 스님이 건립한 쌍계사 대웅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으나 기둥과 보 등 주요 목부재가 이완돼 건물이 앞쪽과 왼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대웅전 보수공사는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관계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시공 되고 있으며 주요 공정을 기록으로 남겨 보수 공사가 끝난 이후 해체실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팔작지붕 형태의 단층 목조건물인 쌍계사 대웅전은 지붕 처마와 기둥, 다포 양식의 공포 등이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두식 기자



# 연등축제

L o t u s L a n t e r n F e s t i v a l 燃燈祝祭

**불기 2550(2006)년 4월 30일(일)**

**불교문화마당** 정오 - 오후 7:00 조계사 앞길

**예술림 마당** 오후 4:30 - 6:30 동대문 운동장

**제등영행** 오후 7:00 - 9:30 충로 (동대문 → 조계사)

**대웅 한마당** 오후 9:30 - 11:00 조계사 앞길











